

고래들의 무덤 된 여수 앞바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상괘이 등 3년간 100마리 이상 희생 밍크고래 5500만원에 위판...혼획 빙자한 불법포획 지적도

여수 앞바다가 밍크고래, 상괘이 등 고래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래들은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100마리 이상이 질식사 등으로 죽었다.

여수해양경찰은 "27일 오후 2시40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동쪽 500m 해상에서 Y호(24t)가 설치해놓은 정지망(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설치해 놓는 합성식 그물)에 밍크고래(길이 4m20cm·무게 1t 추정) 한 마리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선장 박모(60) 씨가 발견, 돌산 해양파출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해경, 국립수산물관리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감별을 했다. 감별 결과 고래는 작살로 인한 상처 등 포획된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박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와 함께 인계됐다. 박씨는 울산수협에 해당 고래를 5500만원에 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수 연안에서만 밍크고래 8마리, 상괘이 16마리, 범고래 1마리 등 총 25마리가 혼획됐다. 지난달 26일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범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었고 지난 6월18일과 5월 21일에는 각각 남면 연도 인근 해상과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밍크고래 6마리, 상괘이 18마리 등 24마리가, 지난 2015년에는 밍크고래 6마리, 상괘이 60마리 등 총 66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었다. 같은 기간 완도해경에는 2015년 1월5일 완도를 망서리 연안, 2016년6월8일 보길면 보옥항 4.5km 전방 해상, 올해 1월3일 제주도 북동쪽 11km 해상에서 고래 혼획이 신고됐다.

국립수산물관리원 고래연구센터는 여수에서 고래가 빈번하게 포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크게 서식 환경, 우리나라 동해~동중국해 이동통로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 전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상괘이는 알은 수심과 약한 불살, 탁한 물을 좋아해 특히 섬이 많은 여수에 많이 몰려



27일 여수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다는 설명이다. 밍크고래의 경우 봄~가을에는 동해안에서 지나다가 겨울에는 새끼를 낳기 위해 동중국해로 이동을 하는데 여수 앞바다가 길목이다.

고래연구센터는 지난해 3월 아랫부분에 큰 구멍을 뚫어 작은 물고기를 잡고 상괘이는 탈출 가능한 어구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보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포획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7891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수협에 공식 위판된 경우는 2851마리에 그쳤다. 나머지 5040마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불법적인 사적 매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혼획을 빙자한 포획을 통해 불법 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은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물위로 올라오며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고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식환경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어민들의 보호 의식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28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희망2018 나눔캠페인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71.6도를 가리키고 있다. 캠페인 39일째를 맞은 이날까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7억여원이 모였으며, 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모금액 51억8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29
달출 14:21 달몰 02:52

감기 조심하세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저녁 일교차 크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구름 많음 | -3/9 | 보성 | 구름 많음 | -5/8 |
| 목포 | 구름 많음 | -1/9 | 순천 | 구름 많음 | -1/10 |
| 여수 | 구름 많음 | 0/10 | 영광 | 구름 많음 | -5/8 |
| 나주 | 구름 많음 | -5/9 | 진도 | 구름 많음 | -1/10 |
| 완도 | 구름 많음 | -1/11 | 진주 | 구름 많음 | 0/9 |
| 구례 | 구름 많음 | -4/8 | 군산 | 구름 많음 | 0/9 |
| 강진 | 구름 많음 | -3/10 | 남원 | 구름 많음 | -3/7 |
| 해남 | 구름 많음 | -5/10 | 축산도 | 구름 많음 | 2/11 |
| 장성 | 구름 많음 | -5/9 | | |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서~북서 | 0.5 | 서~북서 | 0.5 |
| 남부 | 서~북서 | 0.5~1.0 | 서~북서 | 0.5~1.0 |
| 남해 | 북서~북 | 0.5 | 북서~북 | 0.5 |
| 서부 | 북서~북(동) | 0.5~1.0 | 북서~북 | 0.5~1.0 |
| 남부 | 북서~북(서) | 0.5~1.0 | 북서~북 | 0.5~1.0 |

생활지수

| | |
|------|---|
| 매우높음 | ☀ |
| 높음 | ☁ |
| 감기 | 👤 |
| 한때나쁨 | ☔ |
| 미세먼지 | 🌫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10:31 | 03:26 |
| 22:44 | 16:11 | |
| 05:48 | 18:02 | |
| 11:45 | --:-- | |

주간 날씨

| 30(토) | 31(일) | 1/1(월) | 2(화) | 3(수) | 4(목) | 5(금) |
|-------|-------|--------|------|------|------|------|
| ☁ | ☁ | ☁ | ☁ | ☁ | ☁ | ☁ |
| 0/9 | 2/6 | -2/4 | -3/5 | -3/6 | -2/5 | -1/5 |

새해 첫날 쾌청...해돋이 볼 수 있다

광주·전남, 주말 눈·비 예보에 해돋이 보기는 어려울 듯

무술년(戊戌年) 첫날인 1일엔 맑은 날씨 속에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주말인 30일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2도, 낮 최고기온은 8도~11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30일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기온은 7도~10도 분포를 보이겠다.

31일엔 낮 기온이 전날보다 1~3도가량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침기온은 1~4도, 낮기온은 6도~8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해돋이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해 첫 해돋이는 광주·전남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새해 첫날인 1일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돋이는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현배기자 young@kwangju.co.kr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 제한 검토

정부 유아 놀이시간 보장 취지...사교육 조장 우려도

앞으로는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후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치원의 영어수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제한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2020년 적용하는 새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2020년 바꾸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넣어 영어수업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유아들의 놀이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누리과정이 영어수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유

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층을 유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16일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유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만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에는 2700명 가량이 동의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장에 정 신 신경외과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8대 병원장에 정신(신경외과·사진) 교수가 임명됐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제5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신 화순전남대병원장 선임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기는 2년.

정신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 진료처장, 기획실장, 교육연구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미래위원회 위원장·대한신경외과학회 호남지회장 등을 맡아 학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장이 취임식은 29일 오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 062-531-3530